

문학적 상상력과 종교적 상상력*

-제주 무속본풀이와 창세기의 모티브 비교

현 길 언**

<Abstract>

Hyun, Kil-un. 2014. *Literary Imagination and Religious Imagination: Comparison between motifs of Jeju Changsebonpuli and Genesis*. There is a homogeneity between motifs of the creation myth of Jeju and of Genesis in the Bible which have different regional and cultural backgrounds and style of faith. They commonly consider the previous state of Creation of the world as 'Mixed Chaos of all things' and are the same in the aspect that creation continues to form a new order through the process of 'separation and unity'. Next, they are in accord on Advent Motif of God which means help of the God of sky only makes it possible to change the incomplete order of the earth into the complete one. 'Motif of quarrels between brothers' is started from a challenge to the order of creation. In the Bible, it began with the challenge of Adam and Eve to God, and in Bonpuli, the son disobeyed his father Cheonjiwang's wishes. This motif of quarrels between brothers explains that human sin leads to the breakup of relationship between the members of a family and it becomes a source of confusion in the world. There are differences of narrative messages although the motifs between Bonpuli and Genesis maintain a homogeneity. It is attributed to an intrinsic attribute of literary imagination and religious imagination in a narrative. Nevertheless, both genres have in common to aspire toward a new order. The language of the Creator can communicate with human language because of a homogeneity between the Creator and the rational mind of the human. Therefore, literary imagination is able to meet with religious imagination. This is indicative of a possibility that eventually God and human will unify.

주제어 : Literary Imagination(문학적 상상력), Religious Imagination(종교적 상상력), Motif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A2A03045419).

** 장로회 신학대학

of Genesis(창세 모티브), Motif of Separation and Unity(분리와 통합 모티브), Advent Motif of God(신의 강림 모티브), Motif of quarrels between brothers(형제 다툼 모티브)

1. 문제와 방법

이 글에서는 제주도 무속본풀이¹⁾인 <천지왕본풀이>(이하 본풀이)와 기독교 성경<창세기>에 나타난 우주 창세와 인류 역사의 시작에 대한 모티브를 상호 비교하여 문학적 상상력과 종교적 상상력의 관계를 논의하려 한다.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숭배하는 종교로서 다른 종교에 비해 반 무속적 속성이 강하다. 또한 성경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후예들이 받아썼다²⁾는 사실을 고백적으로 수용한다. 그래서 “창조된 만물은 심히 좋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왜냐하면 위대하신 건축가께서 그 무한하신 생각으로 영원 전에 설계하신 형태에 온전히 부합했기 때문이다. 만물은 제 각기 창조의 목적에 정확하게 일치했고, 설계된 목적에 맞게 생성되었다”³⁾고 인식한다.

성경과, 지금은 종교적 의미보다는 민속 유산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무격신(巫覡神)의 내력담인 본풀이를 비교하는 일은 다소 엉뚱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이 논의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서사적 문학양식으로 쓴 텍스트로⁴⁾로, 본풀이는 무격신의 내력담이라는 종교적 의미보다는 향유자들에 의해 성

- 1) ‘본풀이’는 ‘본’과 ‘풀이’의 복합명사로서 신의 본원(本源)과 내력을 해석 설명하는 뜻이다. (현용준, 《제주도무속연구》, 집문당, 1986. p.273)
- 2)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제가 된다. 성경의 저자에 대한 해답은 다음의 성경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1장 21절(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외에도 <요한계시록>1장 1절, <디모데후서>3장 16절, <예레미야>36장 2절 등 여러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과 양식 등을 통해서 인간의 저술로는 감당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에 의해 쓰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로버트 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조계광 역, 생명의 말씀사, 2014, p.141.
- 4) 성경의 기술 양식을 문학적 서사양식이라는 관점으로 논의한 내용은 다음 책을 참고(현길

장해은 구비전승 텍스트라고 전제하고 비교하려는 것이다.

본풀이는 무속의 제의(祭儀) 제차(祭次)에서 무신(巫神)을 청하기 위해 그 신의 내력을 심방(무격)이 구송하는 내력담이다. 그런데 굿은 무속의례이면서 마을사람들이 참여하는 공동체 행사였다. 개인 굿인 경우에도 사람들은 굿을 해야 할 처지에 있는 집안의 형편을 위로하면서 부조하고 굿을 구경한다. 그래서 굿 의례가 행해지는 공간에서 심방이 구술하는 무격신(巫覡神)의 내력담은 굿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듣고 혹 감동도 받아서 굿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공유하게 된다.⁵⁾ 그래서 그것은 비정형으로 전승되어, 제주 사람들이 ‘공유하는 유산으로 삼았다.’⁶⁾ 이처럼 본풀이는 무속의례의 종교적 의미와는 달리 사람들이 즐겨 향유하는 구비문학으로 성장해온 것이다.

인류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성경이 한국의 부속도서에서 구전되는 본풀이의 모티브를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종교적 상상력과 문학적 상상력의 상호 관계를 밝힐 수 있는 한 근거를 얻게 된다. 이것은 성경과 본풀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주 창세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인 사유가 문화와 종교와 민족,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적 인식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두 장르간의 논의는 종교와 문학의 경계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단서를 제공할 것이다. 우선 본풀이에서 창세기의 중심 모티브를 찾아내어 그 문학적 상상력의 실체를 밝히고, 성경 모티브의 의미와 비교하면 종교적 상상력과 관계가 드러날 것이다.

제주도 무격신화 중에 개벽신화의 대표 격인 천지왕본풀이는 여러 경로를 거쳐 구전되어 왔는데, 구비문학과 민속학 전공자에 의해 채록되어 보존되고 있다.⁷⁾ 이

언, 《인류역사와 인간탐구의 대서사》, 물레, 2008, pp. 13-16)

5) 이 글의 텍스트인 천지왕본풀이도 제주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야기로 전해왔다. 제주 사람들에게는 ‘본풀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야기’로 향유되었다. 굿의 제차에서 심방이 신을 불러내기 위해 그 신의 내력담을 구송하는 것은 자신의 내력을 사람들이 공감한다고 생각하여 좋아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기구한 생애를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되어 인간에게 다가온다. (현용준, 앞의 책, p.276) 그래서 심방은 신이 더 좋아하도록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드는데, 여기에 일반 향유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6)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p.466.

7) 천지왕본풀이는 현재 9편이 채록되어 있는데, 현용준이 채록한 안사인, 정부병본, 아카마

글에서는 여러 본풀이 자료를 종합하여 하나의 서사로 정리하여 텍스트로 삼으려 한다. 자료에 따라 일부 모티브가 추가되거나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상황의 디테일에는 차이는 있으나, 전체 서사를 이루는 중심 모티브에는 큰 변동이 없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창세와 인류 역사의 서장에 관한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

본풀이⁸⁾ 서사는 3개의 내용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단계(Ⅰ)는 하늘과 땅의 만상이 생성되는 과정이다.

- (1)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에 온 세상은 ‘혼돈의 덩어리’였다.
- (2) 강력한 기운이 나타나 혼돈의 상태가 분리되면서 구분이 생겨 하늘과 땅, 땅 위에 모든 것이 모양을 갖추면서 만물이 생성되었다.
- (3) 하늘에서 파란 이슬과 땅에서 붉은 이슬이 솟아나 서로 만나 만물들이 생겨났다.
- (4) 아직도 어둠의 세계인데, 옥황상제가 해도 둘, 달도 둘 내보내어 비로소 빛이 생겼다.
- (5) 천지에는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았다. 해도 둘, 달도 둘이 있고 땅에는 모든 것이 구별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웠다.

둘째 단계(Ⅱ)는 우주에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 (6) 천지왕은 땅의 총명왕 총명부인과 부부가 되기 위해 땅으로 내려왔다.
- (7) 천지왕은 총명왕과 부부가 되어 땅에서 살면서 큰 질서를 세워놓고 승천해 버렸다.
- (8) 총명부인은 천지왕의 아들 형제를 낳았다.
- (9) 두 아들은 자라서 천상으로 올라가 아버지 천지왕을 만났다.

셋째 단계(Ⅲ)는 땅에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이다.

츠 아키바가 채록한 박봉춘본, 진성기가 채록한 이무생본, 고창학본, 강태욱본 등이다.(현용준, 《제주도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p.18)

8) 천지왕본풀의 개요이다. 이 텍스트는 ‘현용준, 《제주도 神話》, 서문당, 1977’에 게재된 <天地開闢(천지왕본풀이)>에 근거하였다.

- (10) 천지왕은 형인 대별왕에게 땅을, 동생 소별왕에게는 하늘을 다스릴 권한을 주었다.
- (11) 소별왕은 땅의 왕이 되고 싶어 형과 불공정한 내기를 해서 땅을 차지한다.
- (12) 땅은 여전히 질서가 잡혀있지 않아 혼란스러웠다.
- (13) 소별왕은 형에게 도움을 청했다.
- (14) 대별왕은 땅으로 내려와 자연의 질서, 사람의 생사의 질서만을 해결하고 승천했다.
- (15) 땅에는 여전히 사람들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이 본풀이는 창세 모티브, 통합과 분리의 모티브, 천왕(天王) 강림 모티브, 형제 다툼 모티브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모티브들은 창세기의 주요 모티브와 그 내용과 기능에서 공통된 점이 많다. 이 두 텍스트 간의 모티브의 동질성은 전파론의 입장보다는 서사 발생론의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두 텍스트간의 공통점은 전파와 수용의 관계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사유가 공통적으로 나타나 중요한 자질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즉 우주 창세와 만물의 생성은 모든 인간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인간의 사유와 삶을 정직하게 반영하는 문학적 상상력과 종교적 상상력에서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학과 종교의 관계, 더 나아가서 성경을 문학적으로 이해하는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이 논의는 먼저 본풀이의 주요한 4개의 모티브를 성경의 모티브와 비교하여 문학적 의미와 종교적 의미를 찾고, 문학적 상상력과 종교적 상상력의 관계를 파악하여, 인간의 언어와 신의 언어⁹⁾와의 관계를 생각하려고 한다.

9) 기독교의 입장에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다. 성경은 신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기술한 문서로서 이것을 통해서 신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길언, 《문학과 성경》, 한양대출판부, 2002, p.29)

2. 천지왕본풀이와 성경의 모티브

2.1 창세(創世)모티브

창세 모티브에는 창세 이전의 상태와 창세 이후 만물이 생성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창세 이전의 상황은 ‘혼돈’이었다.

(1) 우주가 탄생되기 전에 온 세상은 혼돈상태였다. 하늘과 땅의 구분도 없었다. 모든 것은 어둠에 휩싸여 한 덩어리로 질서도 없이 아무렇게나 혼합되어 있었다. (현용준 본, <천지왕본풀이>)

(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1)본풀이와 (2)성경에서,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 상황은 ‘혼돈’ 상태인데, 창세기에는 그 혼돈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신이 존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혼돈은 모든 것이 무질서하게 한 덩어리로 엉켜 있는 상태이다. 이 혼돈에는 이후에 나타날 창세의 모든 요소들 즉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의 뿌리’가¹⁰⁾ 혼합되어 있다. 물리학적 개념으로는 그것은 ‘에너지’인데, 이를 바탕으로 해서 창세가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이후에 나타나는 만물은 혼돈에 내재해 있었던 힘이 창조의 원천이 되어서 생성되었다. 그 일은 물리학의 관점에서는 자연의 운동으로, 종교적 상상력으로는 신의 일함으로, 문학적 상상력으로는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태 그 자체를 제시하였다.¹¹⁾ 여기에서 종교적 상상력과 문학적 상상력이 만나는 접점이 있

10) 토마스 베리, 브라이언 스윙, 《The Universe Story(우주이야기)》, 맹영선 역, 대화문화아카데미, 2010, p.33.

11) 본풀이의 천지왕은 신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는 땅의 여신과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다는 점에서 신적 존재라기보다는 영웅적인 ‘초월자’로 생각할 수 있다. 조동일은 창세신화의 다음 단계인 고대영웅서사시라고 했다. (조동일, 앞의 책, p.58)

는데, 그것은 이 혼돈 상태가 우주 탄생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이다.

- (3)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창세기 1장 3-5절)
- (4) 강력한 기운이 이 어둡고 혼잡스러운 곳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 기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갑자년(甲子年) 첫 해에 그 첫 날 첫 시간에 하늘의 머리가 자방(子方)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음 해(乙丑年) 두 번째 날 두 번째 시간에 측방(丑方)으로 땅의 머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드디어 하늘과 땅이 구분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구분이 점점 뚜렷해지더니 땅 모양이 구체적으로 생겨났다. 산이 생기고 골짜기가 생겨 그곳으로 물이 흘러 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이 분명하게 갈라졌다.¹²⁾

창세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이고 체계 있게 기술했다. 이 책에서 창세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절대 신’이다. 그는 스스로 그 혼돈 상태 가운데서 존재했다. 그가 ‘말씀’으로 혼돈된 상태에 질서를 부여하면서 단계적으로 우주 만물이 이루어졌다.¹³⁾ 그런데 “그 창조는 명령이고 이 명령은 자유로운 것이었다.”¹⁴⁾ 이렇게 창조된 피조물도 자유로웠다. 그래서 그 피조물은 연속적으로 다른 것과 결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었다. 여기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물리학적 개념으로는 ‘운동에너지’이고 창조의 자발성을 의미한다.

본풀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강력한 힘’이었다.

12)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창세신화(천지왕본풀이)>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이 내용은 ‘현용준, 《제주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pp. 33-34’ 에 수록되어 있음.

13)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만물을 단계적으로 창조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창조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빛, 하늘과 땅, 물과 바다와 거기에서 생식할 식물과 하늘의 별들을, 조류, 짐승과 새들을, 그리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했다.(창세기 1장 1-31절). 말씀이 이러한 창조 작업을 했고, 그 결과는 하나님도 ‘보기에 좋았다’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피조물에 대해서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축복했다.

14) 디트리히 본 히퍼, 《창조와 타락》, 강영성 역, 대한기독교서회, 2010, p.57.

이 힘에 의해서 혼돈의 상태가 분리되면서 하늘과 땅이 구분되었고, 그 다음에, 그 땅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시 구분되어 바다와 육지와 산과 골짜기가 생겨났다. 이러한 과정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란 절대 신이 그 일을 담당했다고 인식한다. 본풀이에서는 스스로 그 혼돈상태가 보유하고 있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저절로 분리되었다. 성경은 종교적 상상력으로 창세의 주체와 그 과정을 설명하였다. 본풀이는 인간의 사유를 근거로 하는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 사실만을 설명했다. 인간은 그 ‘강력한 힘’의 실체를 해명할 수 없다. 그래서 창세 주체의 존재를 알 수 없었으므로 ‘강력한 힘’이라고만 인식한다. 여기에서 문학적 상상력과 종교적 상상력의 차이가 드러난다. 그런데, 이 두 입장에서, 그 근본적인 문제 즉 “혼돈의 상태에 질서가 생기면서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다만 창조의 주체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다. 종교적 상상력은 신념의 결과이기 때문에, 신이 그 일을 했다고 하지만, 문학적 상상력은 세계 현상을 정직하게 인식한 결과를 말할 뿐이다.

물리학의 입장에서 한 덩어리가 폭발되어 여러 개체로 분리되면서 우주만상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 이 폭발은 자생적인 힘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도 혼돈 상태가 질서화하는 과정이다. 폭발함으로써 하나로 존재했던 혼돈상태가 여러 개로 분리되면서 그 혼돈상태가 지니고 있었던 요소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었다. 과학은 자연운동을 신뢰한다. 변화의 주체를 자연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라고 인식한다. 이렇게 종교적 이해나 문학적 이해나 과학적 이해에서 우주의 근원이 ‘혼돈 상태’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동일하다. 단지 이 혼돈을 변화하게 하는 힘, 즉 변화의 주체만이 다르다.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단지 인식 방법의 차이일 뿐이다.

종교적 상상력은 창조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절대 신’이라고 인식한다. 특히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대전제에서 시작되었다. 반면에 문학적 상상력은 현상을 인간 인식의 수준으로 이해한 결과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강력한 힘’이 원동력이 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인식 수준이다. 과학적 사유는 존재하는 것 자체의 운동에 의해 사물이 존재하고 변하고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체의 운동을 신뢰한다. 그것은 질서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혼돈 상태에서 자발적

인 운동에 의해 폭발되어 여러 개체로 분리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원형을 인식하는 데는 입장이 큰 차이가 없지만, 개별적인 상태, 그것이 더욱 세분화될수록 인식하는 방법은 차이가 난다. 그런데 본풀이와 창세기 사이에는 차이보다는 동질성이 더 많다.

2.2 분리와 통합 모티브와 질서와 혼란

최초의 창세는 혼돈에서 질서가 형성되면서 이루어졌다.¹⁵⁾ 그렇다면 혼란에서 질서가 생기는 과정은 어떠한가? 본풀이에서는 ‘강력한 기운이 나타나 혼돈 상태를 갈라놓으면서 구분이 생겨 하늘과 땅, 땅 위에 모든 것이 모양을 갖추어졌다’고 한다. 즉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 통합 상태를 분리해 놓으면서 구분되어 질서가 생겼다는 것이다. 혼돈상태를 분리해 놓으면 여러 개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동질적인 것을 찾아내어 그들끼리 체계를 이루면서 질서가 나타난다. 하늘과 땅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맨 처음에 나누어지면서 생겨났다.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그 혼돈 상태를 계획적으로 분리하면서 6일 동안에 우주만물을 창조한다. 여기에서 분리는 창조의 방법이 된다. 이러한 방법론은 학문의 방법론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창조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서로 ‘다른 것끼리 만나 화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늘에서 파란 이슬과 땅에서 붉은 이슬이 솟아나 서로 만나면서 우주 만물의 질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질적인 것의 결합으로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다는 것은 과학적 사유와 통한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지속적인 반복과 끊임없는 모순의 생성과 지양을 통해 변화 발전한다는 사회과학적 논리와도 상통한다. 만물의 생성 발전은 서로 다른 것의 결합으로 가능했다. 암과 수가 결합해야 새끼를 낳을 수 있고,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야 물이 만들어진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하늘을 향해 솟아 있는 가지가 햇빛을 받고 땅으

15) 여러 민족이 향유하는 창세 신화에서 창조란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중국인의 사유를 관통하고 있다. (엔소니 크리스티, 《중국신화》, 김영범 역, 범우, 2011, p.92)

로 뺏어 내린 뿌리가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올려 성장의 동력을 얻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과학적이며 우주적이다.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나눔으로써 서로 상대되는 것을 이루어 놓았다.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었고 다음에는 하늘과 땅을, 바다와 육지를, 식물과 동물을,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것을 만들면서 다음 단계의 창조로 이어졌다(창세기 1:1-25). 이렇게 창조는 서로 다른 것을 창조하고, 그것 위에서 다시 새것을 창조하였다. 사람도 아담을 만들고 그의 갈비뼈로 여자 하와를 만들었고, 남자는 여자와 만나 짝을 이루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살아가도록 한다(창세기 2:24). 노아의 방주 때에도 짐승들과 새들이 수컷과 암컷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 나중에 그들의 땅에서 번성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분리함으로 서로 다른 것이 생성되고, 그 다른 것끼리 결합하여 새로운 것을 다시 만들어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본풀이에서 땅에는 여전히 혼란이 남아있게 되었다. 해도 둘, 달도 둘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만 있어도 될 것인데, 많이 있어서 혼란이 야기되었다. 둘은 갈등을 만든다. 뿐만 아니라, 같은 것이 중첩되어 있으면 새로운 것을 이루어낼 수 없다. 그래서 하늘의 왕인 대별왕이 땅에 내려와서 둘 중에 하나를 없애자 질서가 확립되었다. 또한 땅이 혼란스러운 것도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귀신이 구별이 없었고, 새와 짐승들이 구분이 안 되었고, 나무와 풀들의 구분도 안 되어 혼란이 심해졌다. 땅에 존재하는 것들의 개별적인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아서, 경계와 구분이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란은 소별왕이 천지왕의 명을 거역하고, 형과 불공정한 내기를 해서 땅의 왕이 되었기 때문이다. 소별왕의 공의롭지 못한 처사가 혼란의 원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소별왕으로는 이 혼란을 해결할 수 없었다. 자신이 혼란의 주범이었기 때문이다.

분리와 통합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혼란스러워진다. 땅의 혼란은 소별왕의 욕심에서 비롯되었다. 천지왕은 합리적으로 형인 대별왕에게는 땅을, 동생인 소별왕에게는 하늘을 다스리도록 권력을 분배해 주었다. 천지왕의 이러한 분배 원칙은 하나의 질서였다. 그런데 소별왕이 땅의 왕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의 질서를 거역하게 된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소별왕은 형과 내기를 하는데, 반칙으로 이겨서 땅

을 다스리게 된다. 소별왕은 두 번에 걸쳐서 창조의 질서를 파탄시켰다. 아버지 천지왕의 질서를 거역했고, 불공정한 내기로 두 번째 창조의 질서를 파탄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땅을 다스리게 되었으니, 그 땅이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분리와 통합으로 나타나는 창조의 질서가 인간의 욕심에 의하여 무너졌을 때에 필연적으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도 창조의 질서이다. 소별왕은 땅을 지배하는 왕이었으나 땅의 혼란은 극복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인간이 땅의 혼란과 무질서를 극복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성경 창세기에서도 혼란과 질서의 문제가 인류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했기에 그 결과는 아름다웠다. 그 창조의 도구인 언어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면서 질서의 체계를 갖추었다. 하나님과 인간만이 그것을 사용하여 창조적인 일을 수행하도록 한다. 인간의 창조적인 능력은 하나님이 부여해준 것이다. 피조물을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 다음으로 창조적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이다. 인간의 창조 행위는 이미 창조된 것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관리자의 수준이다. 여기에 하나님과 인간은 구분이 있고, 그것은 우주의 큰 질서였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되었고, 이 큰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다. 선악과는 창조주와 인간을 구별하는 일종의 ‘경계의 나무’이다. 조물주와 피조물주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나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자와 구별할 수 없는 자,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경계의 나무였다. 그런데 그 경계를 무너뜨린 것은 인간의 욕심이었다. 결국 인간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추방된다. 에덴은 완벽한 질서의 공간이었기에 질서를 파탄시키는 인간은 거기에서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떠나야 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파탄은 연쇄적인 파탄을 가져오게 된다. “이것은 윤리적인 과실이 아니라 피조물에 의해 창조세계가 파괴된다는 것이다. 이 타락의 범위가 전 피조세계에 확장된 것”¹⁶⁾이다. 창조주는 이 우주와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16) 본 히퍼, 앞의 책, p.152.

들 사이에 상호 질서체계를 만들었다. 그런데 한편에서 그 질서가 무너짐으로써 전체 안에 있는 개별적인 존재들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된다. 결국 자연과 인간의 관계도 무너진다. 자연을 관리하기 위한 인간이었는데,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을 지배해야 했기에 그 관계도 변질된다. 다음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파탄된다. 그것은 형제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 카인과 아벨 사이에 사소한 문제로 형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다(창세기 4장). 이것은 최초의 살인이고, 인간관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첫 사건인데, 이 후로 인간들은 영속적으로 물려받게 되었다. 다음으로 천사의 아들들이 땅에 내려와 땅에 사는 아름다운 여지들과 마음에 드는 대로 짝짓고 살게 되면서, 성의 혼란이 일어난다(창세기 6장 1-5절). 이후 인간의 역사는 관계의 파탄으로 인한 혼란의 역사가 되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는 노력을 계속한다.¹⁷⁾ 그것이 문명사회를 이룩하였지만, 문명은 땅의 혼란을 극복하여 질서의 사회를 회복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했다. 오히려 문명을 지향하는 인간의 욕망이 그 질서를 파괴하고 혼란을 가중시켰다.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공동체끼리, 민족과 민족, 문화와 문화끼리 갈등과 대립으로 충돌하면서 땅 위에서는 전쟁이 끝날 날이 없었다. 이러한 혼란의 원인은 질서를 파탄시키려는 인간의 욕망 때문이었다. 하나님을 배반한 아담과 하와의 피가 인간이 이어받게 되면서 경쟁과 대립과 파괴와 신이 되려는 욕망을 낳아 땅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런데 이 혼란은 혼란의 원인이 된 인간에 의해 극복하려고 했으나 가능하지 않았다.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인간은 그 극복을 하늘에 의지하게 되었다.

2.3 신의 강림(降臨)모티브

우주만물이 창조되고 인간이 그 만물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었는데, 지상은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었다. 우주만물은 질서에 의해 운행되면서 스스로 그 존재성을

17) 인간이 문명을 통해서 창조주와 겨루려는 노력을 시도한 첫 번째 시도는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써서 탑을 만들어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한 ‘바벨탑’ 사건이다. 이것은 인간이 과학으로 문명사회를 이룩해서 창조주에게 도전하려는 욕망을 상징화한 것이다.(창세기 11장 1-4절)

유지하고 있는데, 인간이 사는 땅에는 쉬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여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이 문제는 그 땅에 사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를 빌어 해결하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종교적 상상력과 문학적 상상력이 만나게 됨을 창세기와 본풀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과학적 입장에서, 처음에 우주를 생성하게 한 근원적인 힘은 “그 때에만 작용한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조건의 되었다”¹⁸⁾고 한다. 이것은 우주가 생성된 이후에도 창조 작업이 어떤 조건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왔음을 뜻한다. 본풀이는 이러한 창조의 지속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둘째 단계를 보자.

- (6) 하늘의 천지왕은 땅의 총명왕 총명부인과 부부가 되기 위해 땅으로 내려왔다.
- (7) 천지왕은 땅에서 사는 동안 큰 질서만을 세워놓고 하늘로 올라가버린다.

(6)에서 하늘의 왕인 천지왕은 창조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땅으로 내려와 총명왕 총명부인과 부부가 된다. 우주만물을 다스리는 주체인 천지왕은 아직 못 다 이룬 창조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땅의 왕과 결합해야만 했다. 하늘과 땅이 결합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일 중에 하늘 왕이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남겨두었다. 천지왕은 땅의 큰 질서만을 세워놓고 하늘로 올라가버렸다. 그래서 땅에는 완전한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부인의 몫일 수도 있다. 즉 땅에 사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문제였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다.

천지왕이 승천한 후에 총명부인은 아들 형제를 낳았는데, 그들은 아버지를 찾아 천상으로 올라가 만났다. 그들은 아버지 천지왕을 이어 창조 작업을 계속할 창조의 주체가 되었다. 그러나 형제는 천지왕의 대리자였지 완전한 창조의 주체는 아니었다. 천지왕은 두 아들에게 그들이 다스릴 몫을 지정해주었다. 이것은 왕권의 질서이다. 형에게 땅을, 동생에게 하늘을 다스리도록 분담해 맡겼다. 그런데 동생은 그 분담이 불만이였다. 그는 땅의 왕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형과 불공정한 내

18) 토마스 베리. 브라이언 스윙, 앞의 책, p.34.

기를 하여서 결국 땅의 왕이 되었다. 그렇게 땅의 왕이 되었으나 혼란스러운 땅에 질서를 바로잡지 못한다. 그는 아버지의 창조질서를 무시하고 불공정한 내기를 통해서 땅을 다스리게 된 왕이었다. 그래서 땅은 혼란스러운 공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 왕이 혼란의 주범이었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선악과를 범함으로 그들의 후손이 사는 땅이 죄악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호응된다. 소별왕은 결국 하늘의 왕인 대별왕의 도움을 받고 땅의 혼란을 해결하려고 한다.

땅은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자연계의 여러 생명체들도 혼란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다. 더구나 귀신과 사람의 구별이 되지 않아서 인간의 생명도 혼란스러웠다. 대별왕은 동생의 청을 받고 땅에 내려와 자연과 동물 세계의 질서를 세워 주었고, 또 인간의 생사 문제에 따른 귀신과 사람을 구별해 놓았다. 그런데 이렇게 큰 질서는 마련해 주었으나, 사람으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것은 사람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전히 땅에는 사람들 때문에 혼란이 더해갔다.

땅의 혼란은 땅의 왕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하늘의 왕의 도움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점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땅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성경의 중심 내용과 상통한다. 큰이들인 대별왕이 동생이 다스리는 땅에 내려와서 자연과 인간의 생사의 문제는 해결하였지만, 나머지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남겨두고 승천한다. 본풀이는 역사 현장에서 땅에 혼란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하늘 왕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인식했다. 천지왕이 땅에 내려와 땅의 총명부인과 결혼하여 땅의 기본 질서를 확립했고, 땅의 왕이 된 소별왕은 형인 대별왕을 청하여 땅의 질서를 세웠다는 점에서, 땅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땅의 왕으로서 해결할 수 없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지상에서는 쉬지 않고 창조 작업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그 일은 전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지 않고 하늘 왕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인간의 구원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성경의 내용에 가깝다. 범죄로 인해 인간은 에덴에서 추방되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여 그의 죄를 구속해주려고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다. 인간의 구원과 인류 역사의 회복은 창조주의 권한에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사업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구속에도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을 구속하고 땅에 질서를 세우는 것이 창조주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창조주를 믿는 조건이 뒤따른다.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몫이었다. 그런데 땅에서 인간의 죄악은 날로 더해갔다.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쉽지 않았다. 인간은 배신을 되풀이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들을 직접 가르치고, 함께 일하고, 본을 보이고, 기적을 나타내고, 그러다가 결국 자신을 희생하여 죽어 부활함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인간의 구원과 땅의 질서의 회복은 하나님 아들이 땅으로 내려오므로 가능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육신(聖肉身)이 된 예수의 출현은 인류 구원을 위한 ‘신의 강림 모티브’의 구현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하고 있다. 노아시대에 물의 심판을 단행했으나(창세기 7장) 땅의 죄악은 여전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계약을 맺고, 그 민족을 통해서 구원사업을 하였다(창세기 12장). 그러나 택한 민족도 하나님을 배반하여 땅의 죄악은 점점 더해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내려와 십자가를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하나님(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⁹⁾ 구원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이 자기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 가능하다. 본풀이에서 대별왕이 땅의 혼란을 모두 해결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은, 혼란된 땅의 질서를 구축하는데 인간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처럼 땅의 혼란을 극복하여 질서를 수립하는, 즉 땅의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본풀이와 성경은 그 인식의 틀이 같다.

신의 강림 모티브는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혼돈을 극복할 수 없고,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소별왕은 형을 속이면서 땅의 왕이 되었으

19) 요한복음 3장 16절

나 혼란을 극복하여 질서로 만들 수 없는 인간적 통치자였다. 통치권 안에 있는 나라의 질서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그는 무능한 왕이다. 땅의 회복은 부도덕한 권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성경에도 아담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하나님의 통치권에 반기를 들었다.²⁰⁾ 그가 선악과를 범한 것은 선택의 결과였다. 설사 뱀이 유혹했다 하더라도, 하와가 그 나무를 보았을 때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으면 눈이 밝아져 지혜로울 것 같았기’에 먹고 아담에게도 권했다. 자신이 감각적으로 인식한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했기 때문에, 따먹어도 좋겠다는 판단했고, 따먹었고, 아담에게 권했고, 아담도 아내의 말을 듣고 그럴 듯해서 먹었다(창세기 3장 1-7절). 죄를 지은 것은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에 의해서였다. 그 자유의지는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욕망의 소산이었다. 결국 그 자유의지가 인류의 역사를 왜곡시키는 동인이 되었다.

본풀이에서도 천지왕이 맡겨준 대로 대별왕이 땅의 왕이 되고, 소별왕이 하늘의 왕이 되었다면, 땅은 혼돈의 공간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천지왕의 명대로 대별왕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은 우주적 질서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천지왕에 의해 계획된 우주 통치 질서였다. 그런데 소별왕은 그 질서를 자기 욕망에 의해 불공정한 내기를 통해 거부하고 땅의 통치자가 된다. 소별왕 자신이 질서의 파괴자였기 때문에, 땅의 혼돈을 해결할 수 없었다. 즉 인간의 정치적 욕망이나 가치를 통해 땅의 질서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형인 대별왕에게 부탁하지만, 형도 동생의 욕구를 다 충족해줄 수 없었다. 자신은 땅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었기 때문이다. 통치의 영역이 다르고 또한 분야도 다르다. 하늘의 통치는 자연 질서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별왕은 그 부분만 개선할 수 있었다. 즉 인간의 질서가 아닌 자연계의 질서만 바르게 세워두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혼돈을 인간 스스로 질서화할 수는 없지만, 창조주의 사랑으로 회복할(질서화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복음이 된다. 이것은 인간 사유에 근거한 문학적 상상력과 신념에

20) 죄는 “전에 존재했고, 좋았던 것으로부터 떨어져나간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좋은 의도를 외면하고 반전을 도모한 것으로 생각한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창조와 타락》, 문원옥 역, 솔라피데출판사, 2013. pp. 260-261) 즉 질서의 파탄 행위를 의미한다.

의한 종교적 상상력의 차이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받기 위한 인간의 몫을 남겨두었다. 인간이 변하지 않고는 역사의 회복과 인간 구원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적 상상력의 핵심이다. 본풀이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인간 세계의 실상과 그 원인과 그 극복 과정을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해주고 있다. 반면에 그것은 종교적 상상력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종교적 상상력은 신념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풀이에서 인간 욕망의 또 다른 측면을 읽을 수 있다. 인간은 하늘나라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땅을 더 원한다는 것이다. 하늘은 관념의 세계이고, 땅은 현실의 세계이다. 천국이나 극락을 소망하면서, 사람은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천국이나 극락이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완벽한 질서의 하늘나라보다는 욕망이 들끓고 있는 혼돈의 땅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욕망을 숭상하는 인간의 속성이 여기에 확실하게 나타나 있다. 소별왕처럼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부왕의 명령도 형제의 윤리도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한다. 비록 하늘나라는 싸움과 반목과 배고픔과 아픔과 전쟁이 없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하늘나라보다는 미움과 욕망과 불안과 싸움이 그치지 않는 땅을 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질서의 세계인 하늘나라를 통치하던 대별왕은 이러한 땅의 혼란을 이해할 수 없었고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남겨둔 채 하늘나라로 돌아갔기 때문에, 땅은 영원히 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본풀이는 이렇게 혼란스러워질 땅의 실상을 제시할 뿐이지,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이것은 문학적 상상력의 한계 이면서, 땅의 실체를 정직하게 인식한 결과였다. 여기에서 종교적 상상력과 갈림길이 있다.

종교적 상상력은 땅의 혼란의 문제를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인식한다.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극복이 가능하다. 여기에 필연적으로 하늘의 신의 역할이 요청된다. 이 점에서는 본풀이와 성경의 인식은 차이가 없다. 본풀이는 혼란의 현장인 땅의 실상을 그대로 제시했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어쨌든 땅의 혼란은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고, 하늘의 신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이 대전제는 문학적 상상력과 종교적 상상력이 차이가 없으나, 전자는 그 상황을 인식

함으로 끝나고, 후자는 그 극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본풀이나 성경은 땅의 혼란은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그 혼란을 극복할 수 없다는 데서 인식을 같이한다. 본풀이는 현상을 치열하게 인식하여, 인간의 존재론적인 한계성을 제시하는 반면에, 종교적 상상력은 그 극복을 종교적 신념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혼란과 질서의 문제는 과학적인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팽창의 법칙은 존재가 맨 처음 탄생하던 그 순간에 확정되었으나, 그 때까지 다른 법칙들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태초에 소립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고정화되지 않았으며, 오늘 날 그것들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지도 않았다. 아직은 그 상호작용들에 영향을 미치는 자유와 무질서가 있었다……이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그 혼돈의 자유(chaotic freedom)를 즐기고 있다…그러나 그 자유는 다음 시기에는 사라질 것이다”²¹⁾ 이러한 무질서는 앞으로 과학의 힘으로 질서의 새로운 체계가 확립된다는 것이다.

과학적 현상으로도 혼란은 지속되고 있는데, 그것들은 다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 과학적 질서를 찾아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김으로 창조된 인간의 능력’이어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과학적 상상력과 종교적 상상력이 만나는 접점이 있다.²²⁾

2.4 형제 다툼 모티브와 권력

앞에서 논의한 3개의 모티브는 창세와 그 과정의 기본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형제 다툼 모티브’는 역사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 본성의 존재론적 문제를 환기하고 있다.

21) 토마스 베리, 브라이언 스윙, 앞의 책, pp. 35-36.

22) 인간은 하나님의 입김을 받아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피조의 세계를 잘 관리하도록 인간에게 자신의 능력을 부여해주었다. 과학으로 자연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간에게 부여해준 능력 곧 입김이 있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적 능력을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쓸 때에 문명이라는 반 하나님의 문화로 치닫게 되고, 인간 세계의 혼란은 심화된다. (현길언, 《인류역사와 인간탐구의 대서사-어떤 작가의 창세기 읽기》, 물레, 2008, p.330)

형제는 혈연을 같이한 부모 다음으로 가까운 관계이다. 개인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평생 동안 윤리적인 끈을 맺고 살아야 하는데, 그 관계가 파탄되는 경우가 많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형제간의 불화는 인간사에서 흔한 일이어서, 본풀이와 성경을 통해서 그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본풀이에서 이 형제 다툼 내용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를 찾아 하늘에 올라간 형제는 천지왕을 만난다. 천지왕은 두 아들에게 이 우주를 다스릴 왕권을 부여해준다. 장자인 대별왕에게는 땅을, 동생인 소별왕에게는 하늘의 왕을 맡겼다. 천지왕이 이러한 조치는 질서이면서 순리였다. 그런데 동생은 땅의 왕이 되고 싶었다. 아버지의 질서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앞세웠다. 그래서 형에게 수수께끼를 해서 이기는 자가 땅의 왕이 되기로 하자고 사정한다. 형은 동생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었다. 수수께끼를 여러 번 했으나 동생이 졌다. 그러자 동생은 꽃키우기 내기를 제안한다.

(1) 형제는 지부왕(地府王)에게 가서 꽃씨를 받아왔다. 서로가 은으로 된 그릇과 동으로 된 그릇에 꽃씨를 심었다. 얼마 지나자 형이 심은 그릇에 꽃은 싹이 트고 잘 자라는데, 동생이 심은 꽃은 잘 자라지 못했다. 그대로 두면 동생이 지게 마련이었다. 동생은 얼른 피가 생각났다.

“형님 피곤하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 잠을 오래 자는지 내기하기로 합시다. 마음씨 넓은 형은 그 제안도 받아주었다.

형제는 잠을 자기 시작했다. 동생은 눈을 감고 자는 척했다. 형은 동생의 말을 그대로 믿고 깊은 잠에 빠졌다. 동생은 형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는 꽃을 바꾸어버렸다. 한낮이 되어서 동생은 형을 깨웠다.

“형님 어서 일어나셔서서 점심을 드십시오.”

형은 동생의 재촉에 일어났다. 그런데 꽃을 심은 그릇을 보니 잠자기 전과 달랐다. 형은 동생이 잠자는 동안에 바꿔놓은 것을 알았으나 그래도 받아줬다. 그래서 소별왕은 땅의 왕이 되었고, 대별왕은 하늘의 왕이 되었다.²³⁾

동생은 수수께끼 내기 과정에서 질서를 파괴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형을 이긴다.

23) 현용준, 앞의 책, p.30.

그렇게 왕이 되었으니, 그 땅 역시 질서가 유지될 수 없게 된다. 당연한 결과였다. 땅을 차지하려는 동생의 권력 욕망은 형제의 갈등은 심화시키면서 가정의 윤리적 질서를 파탄시키고, 그 결과가 사회로 확산되어 온 세계를 혼란의 도가니로 만든다.

이렇게 형제의 갈등은 권력욕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가족 공동체에서 장자에 대한 욕구로 나타난다. 장자는 가통을 이어받아 집안의 권력자가 된다. 이것은 장자 계승권을 강화했던 가부장 사회의 중심 이데올로기였는데, 고대사회일수록 더욱 공고했다. 본풀이에서 아버지는 장자인 대별왕이 땅의 왕이 되는 것이 순리였으나, 동생 소별왕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권력 분배가 불만이였다. 장자인 형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권력 욕망 때문이었다. 이렇게 천지왕본풀이에서 형제 다툼 모티브를 통해 장자권 싸움의 실상을 밝혀놓은 것은 이 문제가 우주만물의 생성 과정처럼 인간 존재성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이 모티브가 인류의 역사의 시작을 서사화한 창세기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잠자리를 같이하여 인류 최초로 자식을 낳았는데, 첫 자식은 카인이고, 둘째 자식은 아벨이다. 인류 최초의 형제였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았고, 형의 제사는 기뻐 받지 않았다. 화가 난 카인이 동생을 들로 끌어들여 죽여 버렸다(창세기 3장).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되어 살아가는 역사의 시작에서 일어난 끔찍한 살인사건이었다.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서 인간들에게 명심하도록 하였다. 형제간에 벌어지는 미움과 시기과 대립 갈등은 인간이면 외면할 수 없는 굴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화시대 사건은 인간의 생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 집안에서 벌어진다.

(2)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갖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육십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군인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중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썬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팔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던다 (창세기 25장 25-34절)

팔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형에게 산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로 인정받는 일이 남아 있었다.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멀어 앞이 잘 안보이게 되자, 야곱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형의 목소리를 흉내 내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마련하고, 몸에 털이 많은 형처럼 몸을 꾸며 아버지께 음식을 대접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는 동생을 미워한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야곱은 고향을 떠난다(창세기 27장 1-45절. 요약)

동생은 장자가 되려는 욕망을 갖고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샀고, 그것을 공고히 하기 위해 눈먼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다. 배고픈 형에게 팔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것이나 눈먼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은 것은 반윤리적인 행위이다.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룬 야곱도 편안하지 않았다. 집안의 가족 질서가 무너지면서 형의 미움을 받게 되고 형제간의 관계가 파탄된다. 이 후로부터 그는 한평생 나그네로 살게 되었다.

고향을 떠나 외삼촌 집에서 머무르면서 14년 동안 일하고 좋아하는 외삼촌 동생 자매를 아내로 맞이했고, 13자녀를 두었으나 가정은 행복하지 못했다. 첫눈에 반한 외삼촌 누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일했으나, 정작 밝은 날에 보니, 부인은 언니 레아였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7년을 더 일하고 두 자매를 아내로 삼는다. 털 예쁜 언니 레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식의 복을 주었다. 야곱은 인간이 갈망하는 돈과 여자, 자녀의 복을 누렸으나 행복하지는 않았다. 그는 필요한 것을 소유하여 다 누리면서도 인간이 감당해야 할 고난은 피할 수 없었다. 성경은 이러한 형제 다툼 모티브를 통해서 인간의 욕망의 실체를 보여 주고 있다.

형제 다툼 모티브로서 대표적인 설화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오누힘내기 전설”이다.²⁴⁾ 그런데 제주도의 창세신화에서 이 모티브를 통해서 창세의 질서와 땅의 혼돈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형제의 다툼이 보다 근원적인 인간의 존재성이기

때문이다. ‘형제 다툼 모티브’가 세계 각 지역의 설화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것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인간의 보편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성경이 이러한 인간의 집단 상상력을 수용함으로써 종교적 상상력의 근저가 인간의 공통적인 사유에 있음을 말해준다. 성경은 인류 역사와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소재로 인간의 존재성을 탐색하고 있다. 이 점에서 성경은 인간과 세계를 탐구하는 문서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형제 다툼 모티브는 권력 지향적인 인간의 욕망을 상징화한다. 권력은 인간의 본성적인 자기 확대욕구이다. 본풀이에서 천지왕의 영토 분할을 수용하지 않는 소별왕의 처신은 창조의 주역인 천지왕의 창조 질서에 반기를 든 것으로서, 성경의 선악과 사건과 호응된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려는 인간의 욕망은 창조의 대 전제에 대한 도전이다. 이것이 인간 문명의 동력이 되기는 했지만, 문명으로 인한 세계의 혼란은 인간으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영원한 과제로 남아있게 되었다. 이처럼 “죄는 단지 무질서 상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는 반역의 혼돈상태였다”²⁵⁾ 창조질서와 창조주에 대한 도전은 인간 세계에서 연속적으로 파급된다. 부부의 갈등, 가족과 공동체와 민족 국가의 갈등이 모두 인간 욕망에 근원이 있다. 창조 질서의 파괴는 죄를 낳게 되고 인류를 혼돈으로 몰아넣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됨을 본풀이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칼빈은 이러한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사람의 야심으로 자기의 마땅하고 바른 계를 넘으려 하지 않았더라면, 시초의 상태에 머무를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아쉬워했다.²⁶⁾

24) 홀어미는 비범한 딸과 동생 아들을 두었는데, 둘은 늘 싸워서 집안이 편안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누가 내기를 하여 진 사람이 집을 나가기로 한다. 내기하는 도중에 딸이 이기에 되자, 어머니는 아들이 이기기를 원해서 딸을 내기를 방해하여 결국 아들이 이기게 된다. 누이는 집을 나간다. 오랜 후에 동생은 자기가 어머니의 부당한 내기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결하고 만다. 결국 어머니의 부당한 개념으로 비범한 오누는 모두 몰락하게 된다.

25) 오톤 와일지, 폴 켈벗스, 《웨슬레 조직신학》, 전성용 역, 세북, 2002, p.205.

26) 존 칼빈, 《기독교강요》 제2권, 김종흡 역, 생명의 말씀사, 2003, p.368.

3. 종교적 상상력과 문학적 상상력

지역어나 문화 배경과 신앙 양식이 판이하게 다른 제주 창세신화의 모티브와 성경 창세기 모티브 사이에 동질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우선 창세 이전의 상태를 ‘모든 것이 혼합된 혼돈’이라는 점으로 본 것이 일치한다. 다음 단계의 창세, 즉 창세 작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의 구조적인 면에서는 같지만 그 내용이 다르다. 세계는 통합과 분리의 모티브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면서 창조는 계속된다. 미완의 질서 상태를 완전한 질서로 바꾸어지는데, 이 일은 하늘의 신의 강림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대전제는 본풀이나 창세기가 일치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본풀이는 제한적이다. 즉 하늘 왕이 질서가 정착되도록 조치하는 데도, 인간으로 야기되는 땅의 혼란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인간이 사는 땅에는 여전히 혼란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의 현상이고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문학적 상상력의 몫이다. 반면에 종교적 신념으로는 땅의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형제 다툼 모티브는 창조질서에 대한 도전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끝나지 않고 인간 세계에 파급되어, 마치 창조작업이 계속되는 것처럼 죄도 인간 사회에서 혈연관계의 갈등 문제를 낳게 된다. 형제의 갈등은 창조의 질서를 무시했던 인간의 본성적 죄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본풀이에서는 천지왕의 두 아들 간의 내기를 통한 경쟁 이야기로, 창세기에서는 카인과 아벨의 피흘림으로, 족장시대로 내려와서 다시 아브라함 집안의 에서와 야곱 형제의 사건으로 나타난다. 쌍둥이라 하더라도 형과 아우의 관계는 자연적 질서였다. 나중 난 자가 형이 되려는 것은 가족으로서 형제의 관계를 넘어서 출산의 질서, 즉 창조질서를 거역하는 일이다. 그것은 구체적인 권력 싸움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형제의 다툼과 갈등이 본풀이와 창세기에서 주요 모티브로 수용되었다는 것은, 이 창조질서의 거역이 인간의 원초적 죄임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독교의 성경과 인간의 구비전승인 본풀이는 모두 인간의 보편적인 사유의 바탕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풀이와 창세기에 같은 모티브가 동질적인 의미성을 갖고 있더라도 그 구체적 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서사에서 문학적 상상력과 종교적 상상력의 차이 때문이다. 그런데 창세 과정에서 공통적인 것은 두 장르가 모두 새로운 질서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창세기에서는 우주만물이 순차적으로 창조되면서 새로운 세계와 현상이 나타난다²⁷⁾. 초월적 존재인 창조주의 계획과 의지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창조의 주체에 대해 확신이 없는 문학적 상상력으로는 그것을 불가사의한 초월적인 현상으로 인식한다. 자연은 질서 정연한데, 땅에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 현상은 인간의 사유로는 이해할 수 없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현상을 미완의 상태로 인식하느냐, 절대자에 의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현실을 탐색하는 문학적 상상력과 가치를 지향하는 신념의 종교적 상상력으로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본풀이와 창세기를 비교할 때에 우주만물의 창세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한다. 과학적인 입장에서도 이 인식과 근접해 있다. 이 점은 문학이나 종교나 존재하는 현상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 문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과학적 이해와 문학적 이해와 종교적 이해가 같고 다름은 오히려 그러한 인식들이 합리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지 인식 방법과 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은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서 창세기의 모티브는 과학적 판단과 문학적 상상력을 다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성경은 기독교적 입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체계화한 문서이다. 성경의 언어는 인간이 잘 수용할 수 있는 방법과 양식을 취했다. 창조주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소재를 인간의 삶의 현장의 사건과 인간의 사유에서 마련했다. 신의 세계보다는 인간의 세계에 더 관심을 갖고 썼다. 종교적 신념은 신화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는 문학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구현했다.

27) 각주 9)에 의하여 하나님은 창조를 단계적으로 했다. 이것은 한 단계의 창조가 다른 단계의 창조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가지며, 이러한 창조 단계는 만물의 생성에 대한 과학적인 입장과 호응된다.

그러면 어떻게 종교적인 상상력과 문학적 상상력이 만날 수 있을까? 즉 본풀이와 창세기가 공통된 모티브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²⁸⁾ 여기에서 창세기 저자인 하나님의 사유와 그 피조물인 인간의 사유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즉 신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동질성에서 그 논거를 찾아야 한다. 기독교적 세계관의 요체는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그는 창조한 세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동역자로 인간을 창조했다(창세기 2장 15절)는 데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창세기 2장 7절). 이 기록에 의하면, 인간은 흙으로 된 육체와 하나님의 입김으로 된 정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이원적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의 사유와 하나님의 사유 사이에는 동질성이 있다. 우주 창세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표현하는 문학적 상상력과 하나님의 뜻이 포함된 종교적 상상력은 서로 상통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본풀이 모티브와 창세기 모티브의 동질성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본풀이의 문학적 상상력은 다양하게 변이된다. 상황을 표현함에 있어서 신화적 상상력과 현실적 리얼리티 방법으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땅에서 태어난 대별왕과 소별왕이 박녕쿨을 타서 하늘로 올라가 아버지인 천지왕을 만나 형제가 통치할 관할을 분배받는다라는 것은 신화적 상상력의 소산이다. 이 경우에 그 신들은 성경의 창조주와 같은 절대 신이 아니다. 본풀이의 신은 인간의 사유로 만들어진 일종의 서사의 캐릭터일 뿐이다. 즉 인간이 우주창세와 혼란스러운 이 땅의 문제에 대한 사유를 서사화하는 과정에서 기능적 역할을 하도록 설정한 캐릭터이다. 신화적 상상력에 의해 현상을 인식하고 그것은 문학적 상상력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신화적 캐릭터 설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본풀이의 캐릭터들은 절대 신이 아닌, 우월한 존재인 ‘인간적 신’ 즉 영웅에 가까운 캐릭터를 설정한 것

28) 창세기의 기사의 근원에 대한 논의는 중동 지역 바벨론의 창조설화에서 찾기도 한다. 그래서 이 설화와 창세기의 기사를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논의한다.(루이스 벌코프, 《벌코프의 조직신학》, 권수경 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8, p.357) 그러나 이것은 무익한 논의이다. 성경에서 창조에 대한 기사는 인류가 향유하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제주의 창세신화 모티브와 창세기의 모티브와의 동질성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이다.²⁹⁾ 그들 신은 성경에 등장하는 절대신인 야훼와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땅의 혼란을 극복하지 못한다. 이것은 문학적 상상력의 한계이면서 동시에 인간적인 사유로 정직하게 인식한 결과이기에 현실에 대한 리얼리티를 확보하고 있다. 소별왕이 지상의 혼란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은 타당하기 때문이다. 그가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욕망에 인한 세상의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성경은 우주창세와 인간의 문화의 시초에서 시작하여 인류 구원의 과정을 서사양식으로 쓴 것이다.³⁰⁾ 그 소재는 인간의 역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들이다. 그렇다고 성경은 역사책은 아니다. 성경의 역사적 사실은 그 책의 소재일 뿐이다. 성경의 소재에는 반도덕적이고 반 가치적인 내용들이 많다. 즉 역사 현장에서 일어나거나 일어날 수 있는 개연적인 사실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소재가 된 역사적 사실들은 역사적 의미보다는 성경이라는 텍스트의 구조적 의미를 갖는다. 성경에 나타난 사실들은 종교적 신념을 종교적 상상력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취해서 재구성한 작품의 요소로서 소재에 불과하다. 성경은 이 세상의 역사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그 현상에 숨어져 있는 인간의 사유를 소재로 하여 쓰여진 우주적 서사물이다. 그래서 땅의 가치로 볼 때에는 반 가치적인 내용들이 많다. 가치는 현상을 정제하여 만들어놓은 것이기에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땅의 이념이나 가치를 거부함으로써 세상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래서 지상의 사실을 오히려 정직하게 반영할 수 있다. 세계에 분포되어

29) 조동일은 제주 창세본풀이를 영웅서사시로 보았고, 무속설화는 전승과정에서 신이 영웅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조동일, 앞의 책, p.59)

30) 신학자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창세기의 사건이 사실(fact)인가, 허구(fiction)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되풀이해왔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창조와 타락》, 문원록 역, 솔라피데출판사, 2013, p.29) 그러나 이것은 무익한 논의이다. 성경의 작가인 하나님은 인간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핵심적인 논거가 되는 우주 창세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생각하였다. 그래서 즉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창세에 대한 사유를 바탕으로(소재로 하여) 하나님의 서술 방식에 맞게 창조의 원리를 제시했다. 여기에서 허구란 창작자가 소재를 모아가다 의도하는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만들어내었다는 개념이다. 성경의 많은 역사적 소재가 ‘과거의 사실’이라는 역사적 의미만을 갖는다면 복음이 될 수 없다. 성경 소재는 그 역사성을 넘어 그것이 서사적 허구양식이 됨으로 살아있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갖고 있을 때에 복음이 된다. 역사적 의미만을 고집한다면 성경은 ‘의미있는 역사책’에 불과하다.

있는 창세 모티브는 우주의 근원에 대한 문학적 상상력에 의해 구현된 인간의 보편적인 사유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제주 창세 본풀이가 성경의 소재가 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나님의 이야기인 성경에는 과거 인류가 경험했거나 상상했던, 그리고 앞으로 경험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재로 삼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주적인 문서를 만들어내었다. 이 점에서 성경은 종교적 상상력과 문학적 상상력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다시 과학적 논리와도 근본적으로는 상통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의 정직성과 권위를 성경 스스로 자족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성경 《창세기》.

黑崎幸吉, 1976, 《舊約聖書註解》, 성서교재사.

김현선, 1994, 《한국의 창세 신화》, 길벗.

박송성, 2001, 《한국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임원식, 2000, 《히브리성서와 고대근동문학의 비교연구》, 한글출판사.

조동일, 1997, 《동아시아 구비서사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현길연, 2002, 《문학과 성경》, 한양대출판부.

_____, 2008, 《인류역사와 인간탐구의 대서사-어떤 작가의 창세기 읽기》, 물레.

현용준, 1977, 《제주도 神話》, 서문당.

_____, 1986, 《제주도무속연구》, 집문당.

_____, 2005, 《제주도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_____, 2005,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디트리히 본히퍼, 2010, 《창조와 타락》, 강영성 역, 대한기독교서회.

루이스 벌코프, 2008, 《벌코프이 조직신학》, 권수경 역, 크리스찬다이제스트.

엔소니 크리스티, 2011, 《중국신화》, 김영범 역, 범우(주).

오톤 와일지, 폴 켈벗슨, 2002, 《웨슬레 조직신학》, 전성용 역, 세북.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2013, 《창조와 타락》, 문원옥 역, 솔라피데출판사.

존 칼빈, 2003, 《기독교강요》 제2권, 김종흡 역, 생명의 말씀사.

토마스 베리, 브라이언 스윙, 2010, 《The Universe Story(우주이야기)》, 맹영선 역, 대화문화아카데미.

한스 W. 프라이, 1996, 《성경의 서사성 상실》, 이종록 역, 한국장로교출판사.

* 이 논문은 2014년 6월 29일에 투고되어 2014년 8월 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4년 8월 18일 편집위원회를 통해 게재가 결정되었습니다.

K C I